

# 이슬라모포비아

## : 요한복음에 나타난 포용의 신학

신숙구\*

I. 들어가는 말

II. 성육신: 계시의 보편성과 예수 닮기

III.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관계

IV. 사마리아 여인

V. 요한이 전해주는 포용의 신학

VI. 나가는 말

\*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 ■ 한글초록

이슬람포비아는 동서를 막론하고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사회적 혐오 현상 중의 하나이다. 무슬림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해자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무슬림을 일터나 일상생활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신교 내에 무슬림을 향한 증오를 부추기는 가짜 뉴스 배포와 그릇된 종말론적 시각으로 인해 무슬림을 우리의 이웃이자 전도의 대상이 아닌 사회를 어지럽히는 공공의 적으로 몰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단순히 무슬림에 대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슬람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를 닮아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가 보여주는 포용의 모범을 분석한 후, 그러한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론, 종말론, 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무슬림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이슬람포비아, 성육신, 새 언약, 포용, 세계관, 공동체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여러 가지 혐오가 뒤섞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종과 종교에 관련된 혐오는 인류의 문명사와 궤를 같이할 정도로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십자군 전쟁, 흑인 노예, 홀로코스트, 르완다 집단학살, 9/11 사태 등 인류의 역사에서 혐오로 비롯된 갈등은 끈질기게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였다.<sup>1</sup> 더욱이 인권과 윤리 의식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혐오 범죄는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나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잠재적, 또는 실질적 위협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제거해야 할 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비이성적인 레토릭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갈등이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갈등은 주로 북미, 유럽, 이스라엘에서 한정적으로 일어났기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이러한 갈등은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되었다.<sup>2</sup> 하지만 지난 20년간 국내의 무슬림 유입의 증가, 샘물교회 피랍사건, 난민 사태, 테러의 위협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무관심이 혐오로 바뀌기 시작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1 종교 갈등으로 인한 폭력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acques G. Ruelland, *Histoire de la Guerre Sainte*, 김연실 옮김, 『성전, 문명충돌의 역사』 (서울: 한길사, 2003).

2 이슬람과 서구의 갈등에 대한 오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다음 책이 유용하다. Tamar Sonn, *Is Islam an Enemy of the West?*, 김문주 옮김, 『어떻게 이슬람은 서구의 적이 되었는가』 (서울: 시그마북스, 2017).

않았다. 특별히 보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SNS를 통하여 이슬람을 적대시하고 악으로 규정하는 혐오의 글들이 빠르고 무책임하게 퍼지고 있다. 심지어 몇몇 개신교 단체는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배포함으로써 이슬람 국가에 대한 왜곡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슬림에 대해 증오를 갖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sup>3</sup>

이렇게 혐오와 증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이슬람을 이해하고 혐오의 감정을 극복하는 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증오의 모습이 개신교 내에서 고착화 되어 가는 것은 매우 우려할 부분이다. 개신교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화해의 모습이 사라지고 증오의 감정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자 선교의 대상인 무슬림을 불결하고 위험한 집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혐오의 현상이 그릇된 세계관과 새 언약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성경에 입각해서 인종 또는 종교로 비롯된 증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증오의 감정들을 어떻게 타파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슬라모포비아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을 통해 다루어져 왔다.<sup>4</sup> 그러기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반복하기보다는 성서학적 관점에서 이슬람 혐오를 어떻게 극복하고 무슬림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행하

3 김선일은 왜곡된 두려움은 선교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김선일, “이슬라모포비아와 복음전도,”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September, 2016), 83.

4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슬람 혐오에 관한 연구물은 특별히 *Muslim-Christian Encounter* 2016년 가을호를 참고하라. 박종수,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 (2017), 49-70; 김동문, “이슬람포비아, 조장인가 실체인가?,” *진보평론* 67 (2016), 138-159; 정경일, “그리스도인의 무슬림 혐오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2 (2018), 125-140.

고자 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1장 프롤로그(1:1-18)를 중심으로 예수의 성육신과 새 언약 시대의 도래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다룰 것이다. 성육신은 구속사에 대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데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의 성육신이 어떠한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슬라모포비아를 포함해 모든 사회적 갈등은 우리의 왜곡된 세계(가치)관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슬라모포비아와 같은 사회적 이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실천적 함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슬라모포비아를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성육신: 계시의 보편성과 예수 닮기

요한복음은 마태,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한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성육신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이다.<sup>5</sup>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의 성육신을 어떻게 서술하는가? 요한은 1장 1절에 예수를 말씀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다고 선포한다.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시작을 비교하면 언어적으

5 D. Moody Smith,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02.

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책 모두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강조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선포한다. 하지만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을 단순히 인용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예수의 신성과 그의 성육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해준다.<sup>6</sup> 그렇다면 예수의 성육신은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가?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성육신은 계시에 보편성을 가져왔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대언 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옛 언약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언약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다. 하지만 예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러한 제한된 계시가 보편성을 띠게 되었다. 요한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14:6, 7).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 백성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나타나셨다.<sup>7</sup>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유대인만큼 이방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누구든지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다(요 1:12). 구약시대와는 달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

6 앤더슨은 요한이 그 당시 예수를 누구에게나 익숙한 로그스의 개념으로 소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Paul Anderson, *Riddles of the Fourth Gospel: An Introduction to John* (Minneapolis: Fortress, 2011), 222.

7 Craig R. Koester, *Symbolism in the Fourth Gospel: Meaning, Mystery, Commu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289.

어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요한은 성육신을 통하여 천명한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요 3:16) 사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게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행 10장을 참조하라).

두 번째로 성육신은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sup>8</sup>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출 33:19-23)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개념적으로만 가능했다(레 11:44).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직접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기에 옛 언약 관계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의 성육신은 이러한 옛 언약 관계에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새 언약의 관계를 온 인류와 맺으신다.<sup>9</sup>

8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신약윤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써 제자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Richard Burridge, *Imitating Jesus: An Inclusive Approach to New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7).

9 성육신과 새 언약 시대의 상관관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와 예수가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는 신랑 대신 포도주를 제공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처음으로 나타내셨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종종 구원의 풍성함을 상징하고(사 26:6-8; 암 9:11, 13; 율 3:18),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한다(사 25:6-8). 더욱이 들향아리에 담겨 있는 물이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의 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종말론적인 구원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가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성전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종교, 정치, 사회적 중심지이다. 더욱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중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다. 하지만 성전이 더 이상 예배하는 곳이 아닌 돈을 버는 장소로 전락하자 예수는 성전을 청소

새 언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예수는 자신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5:24, 25, 28; 8:43, 47; 10:3, 16, 27; 12:47; 14:24)과 그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13:14, 15; 15:9, 12; 17:11, 14, 16, 18, 21-23; 20:21)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신다.<sup>10</sup> 이러한 획기적인 관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단순히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제자들이 자신을 닮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sup>11</sup>

그렇다면 성육신이 내포하고 있는 신학적 함축성이 우리의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로 새 언약 시대의 도래를 가져온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가 소수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는 성육신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자신을 어떠한 구별 없이 보여 주실 뿐 아니라(1:12),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알려주신다(3:16). 이러한 존재론적 보편성은 “하나님이 타자-인류-가 없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인류를 끌어안기 위해 인류의 폭력을 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sup>12</sup>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부터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도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

하시며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신다(2:19). 그리고 그의 몸이 친히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강조하신다. Sookgoo Shin, *Ethics in the Gospel of John: Discipleship as Moral Progress* (BINS 168; Leiden/Boston: Brill, 2019), 56-57.

10 앞의 책, 131-144.

11 Jason B. Hood, *Imitating God in Christ: Recapturing a Biblical Pattern* (Downers Grove: IVP, 2013), 212.

12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243.



없다(출 23:9; 레 19:34; 신 14:28-29).<sup>13</sup> 또한, 이러한 존재론적 보편성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진리에 근거한다.<sup>14</sup> 특별히 야고보서 3장 9절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믿는 자들 중에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말하는 이중성을 혹독하게 질책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타인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옛 언약을 깨뜨린 인류를 새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sup>15</sup>

다음으로 성육신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여준다. 옛 언약에서 언약 백성의 최고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모든 율법이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기에 율법은 더 이상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이러한 새 언약의 요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13 Craig R. Koester, *The Word of Life: A Theology of John'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08), 81.

14 Imago Dei의 개념이 인간론과 구원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ika Vähäkangas, “Islamophobia in Europe as a Theological Failure,”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0, no. 1 (March, 2017), 40-43.

15 Volf(2012), 246.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여전히 배울 수 있다. 버리지(Richard Burridge)는 그의 책, *Imitating Jesus*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 정책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주도로 폐지한 사례를 든다. 그는 그러한 원동력을 성경을 단순히 목상의 책이 아닌 성경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적에 중점을 둘 때 이와 같은 사회 변혁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6</sup> 필자는 이슬람교포비아와 같은 갈등 또한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sup>17</sup> 그러기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행동, 가르침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수많은 갈등과 증오를 일으키는 현상을 대처해 나가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제껏 우리는 성육신이 가져온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온 인류와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계시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 성육신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음을 보았다. 이제 성육신이 내포한 신학적 함축성을 기억한 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 Ⅲ.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관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은 요한복

16 Burridge(2007), 347-351.

17 문시영도 하우어워스의 논지를 빌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이슬람교포비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문시영,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 이슬람교포비아의 윤리학적 성찰,”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September, 2016), 59.

음에서 매우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장소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요한의 수사학적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은 1장은 프롤로그와 예수가 그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2장에는 예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와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각주 9번 참고). 3장에 와서는 예수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필자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3장과 4장의 관계이다. 요한은 어떠한 신학적, 수사학적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내러티브의 순서를 정했을까? 요한은 20:31에 그의 저술목적 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주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동사는 πιστεύω(피스테우오)인데 1세기 용법에 따르면 이 동사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뜻한다.<sup>18</sup> 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의 신적 정체(divine identity)를 단순히 믿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닌 예수의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한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 4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소개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이다(3:1). 바리새인의 신분과 지도자의 신분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고등 법원으로서 생활, 종교 전반에 걸쳐 유대인들

18 Nijay K. Gupta,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Grand Rapids: Eerdmans, 2020), 56–72.

을 관리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러한 신분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포함해 토라의 전문가였을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예수의 가르침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대화가 거듭되면 될수록 니고데모는 지속적으로 예수의 말을 오해하고(3:4, 9), 결국에 예수에게 그의 무지함으로 인해 질책을 받는다(3:10). 유대인으로서 모든 자격을 이상적으로 갖춘 니고데모의 오해와 무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과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중요시하던 엘리트주의를 온전히 깨트려 버린다.

그렇다면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한가? 세례요한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의 모든 영광과 칭송을 받으며 일평생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이였다. 태생부터 남달랐던 세례요한은 그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스승 요한처럼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보다는 점점 높아지는 예수의 인기를 시기하고 경계하였다(3:26).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다.

왜 요한은 요한 신학의 출입구라 할 수 있는 3장에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모델의 실패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sup>19</sup> 저자 요한과 주인공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의 실패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와 다름

19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가장 최근에 소개된 등장인물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Steven A Hunt, et al, eds, *Character Studies in the Fourth Gospel: Narrative Approaches to Seventy Figures in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6).

없다. 독자의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는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인재인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 못 하고 실패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독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즉 사마리아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의문을 독자들이 품도록 요한은 유도하는 것 같다. 요한은 아마도 이상적인 모델의 실패를 3장에 배치함으로써 내러티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IV.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은 예수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흥미롭게도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이 가진 종교적, 정치적 지위로 인해 절대적인 기득권과 영향력을 누리는 집단이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들의 명예와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은 언제든지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sup>20</sup>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의 인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상승하는 것을 우려해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1:19-24).<sup>21</sup> 4장에 와서는 그들의 레이더에 예수가 포착되었다. 그들이 경계하

20 Anthony Saldarini, *Pharisees, Scribes and Sadducees in Palestinian Society: A Sociological Approach* (Grand Rapids: Eerdmans, 2001), 73.

21 앞의 책, 188.

던 세례요한보다 예수가 더 많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우려를 알아차린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 갈릴리로 가시기로 마음을 먹는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것이다. 일반 유대인들은 전자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최단 거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점은 극단주의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웠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 엄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길을 택하였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불경한 지역으로 보았기에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땅에 그들의 몸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sup>22</sup>

그렇다면 이러한 혐오의 감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 역사는 그 뿌리가 꽤 깊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 함락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앗수르 왕은 함락 이후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다. 수 세기 동안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문화에 노출이 되면서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통 유대인들과는 멀어지게 되었다.<sup>23</sup>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를 향한 혐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해졌고 유대인들은 사마

22 사마리아인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출처나 시기가 불명확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증거만 다를 것이다.

23 Lidija Novakovic, "Jews and Samaritans"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s. Joel Green and Lee M. McDonald; Grand Rapids: Bakers, 2013), 208.

리아인들에게 “어리석은 자”, “우상 숭배 하는 자”, “불경한 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다.<sup>24</sup> 더욱이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게리짐 산에 세우면서 서로에 대한 혐오는 극단에 다르게 된다. 물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으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두 그룹 다 유일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데로 유대인 절기를 지킨다. 하지만 그러한 유사한 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sup>25</sup>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몰랐을 리 없을 예수는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였을까? 요 4:4에 나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라는 문구에서 δει(데이)라는 동사는 예수가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예수는 사마리아를 단순히 지름길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도착한 예수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어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에서 앉아서 쉬시기로 하신다(4:6). 여기서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의 모습은 여러모로 상징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4:1절에 이미 우리는 예수가 바리새인들과의 증폭되는 갈등으로 인해 유대 땅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다. 유대는 어떠한 땅인가?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곳에서 환

24 앞의 책, 208.

25 앞의 책, 215.

영받지 못하시고 핍박을 피해 그 자리를 피하다시피 떠나셨다. 하지만 사마리아 땅에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쉬시는 모습은 초기 독자들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는 유대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핍박하는 장소로 그리는 한편, 불경한 사마리아 땅은 예수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이 설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6</sup>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의 다음 행동이다. 4:7에 예수는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신다. 1세기 지중해 문화권에서 성인 남자가 초면인 성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었다. 더욱이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였다. 9절에 보면 예수의 행동에 놀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며 저자는 다음과 같은 첨부를 한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른 요한복음 사본에는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그들의 식기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 유대인들은 무슬림처럼 음식 규례에 매우 민감한 민족이었다.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였다. 필자가 무슬림권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 무슬림 아이들이 비무슬림 집에 놀러 갈 때 물컵을 챙기는 것을 보았다. 타 무슬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시는 물까지도 비 무슬림 가정에서 주는 컵으로 마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식기에 물이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여기서 ‘상종’이라는 텍스트를 선

26 웨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역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Wayne Meeks, “Galilee and Judea in the Fourth Gospel,” *JBL* 85 (1966), 159–69.



택하던 ‘식기’라는 텍스트를 선택하든 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넘어서지 못하는 벽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하심으로 기존 문화, 종교적 틀을 깨시고 독자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몸소 보여주신다.

9절부터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대화를 보게 된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물을 사용하여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다. 10절에 예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예수의 말씀의 뜻을 알았을 리 만무한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같은 오해를 반복한다. 예수는 영생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인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여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추어내기 시작하신다. 16절에 예수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하신다.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며 그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만, 예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과거를 살살이 드러내신다(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여기서 대부분의 주해자들은 이 구절에서 여자의 복잡한 과거와 그녀가 우물에 물 길어 온 시간을 연결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음탕한 과거로 인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서 우물에 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sup>27</sup> 물론 예수가 이 여인의 과거를 모두 다 용인하시고 정당화시키신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여인의 과거를 들으신 이유는 그녀의 과거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에게 영생의 생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sup>28</sup>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의 관심이 그녀의 외적 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그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여인에게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거기서 형성된 편견으로 그들을 대한다. 하지만 예수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다. 예수에게는 타인의 사회적 배경이나 과거의 모습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예수의 공생애를 보면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적인 약자와 창녀처럼 누구나 죄인으로 인정할 만한 이들을 만나시는 데 사용하셨다.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동 문화에 역행하는 행동이며,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러한 행보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sup>29</sup> 이렇게 기존

27 요한복음 학자인 조석민도 필자와 같은 주장을 한다. 조석민, 『요한복음의 새관점』 (서울:솔로몬, 2009), 187-192.

28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평가는 다음을 참고하라. Fredrik Wagener, *Figures als Handlungs modelle: Simon Petrus, die samaritanische Frau, Judas und Thomas als Zugänge zu einer narrativen Ethik des Johannesevangeliums* (WUNT II/408; Tübingen: Mohr Siebeck, 2015), 341-412.

29 그레코-로만 사회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당시 예수의 사역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David A.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Unlocking New Testament Cultur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96-99.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이방인과 죄인들과의 벽을 허무는 예수가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충분히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sup>30</sup>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맞히자 예수에 대한 여인의 평가가 유대인(9절)에서 선지자(19절)로 바뀐다. 그리고 예수는 21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가장 대립된 문제인 성전에 관해서도 기존 전통을 깨시고 전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4절에 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여야 함을 알려 주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성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인해 예수가 오실 메시아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25절). 예수는 이러한 여인의 인식 변화에 화답하며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신다(26절).<sup>31</sup> 여기서 주의 깊은 독자들은 예수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불경의 땅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드러내실 수 있을까? 더욱이 예수가 22절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을까? 예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유대인의 전통이 정해놓은 수많은 장벽으로 인해 지난 수백 년간 차별을 받아 온 사마리아 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다(사 61:1).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와 사마리아 여인의 반

30 앞의 책, 38-39.

31 “내가 그라”로 번역된 ἐγώ εἰμι는 신적 신분을 드러내는 계시적 선언으로 볼 수 있다. Andreas J. Köstenberger, *Joh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4), 158.

응에서 극적인 대조를 발견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마을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 반면에(27절)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직접 보라며 선교사의 역할을 자처한다(29절). 여기서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상징적인지를 34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는 지금 육의 양식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즉 예수가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육의 음식을 가져옴으로써 여전히 그들의 스승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그녀의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러티브의 전개를 통해 요한이 이루고자 하는 수사학적 의도는 무엇인가? 우선 3-4장에 걸쳐 사마리아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 남성 인물로 채워져 있다. 남성 중심 사회인 1세기 그레코-로만 문화에서 여성을, 더욱이 이방 여성을 주인공이나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문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요한은 이러한 편견을 모두 깨는 전개를 가져간다. 니고데모와 세례요한 제자들의 실패는 이미 살펴보았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예수와 함께 한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가 이 땅에 이루려 오신 사역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습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았다(27절).<sup>32</sup>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등

32 예수는 메시아로서 율법이나 유대 전통을 초월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가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이상히 여기는 모습에서 여전히 유대 구습에 매여

장인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여인도 니고데모와 비슷한 오해를 보이지만 예수의 말씀에 끝까지 집중하며 자신의 종교적 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 낸다. 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적인 추수에 참여한 자는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 니고데모도, 세례요한의 제자도, 심지어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다. 누구도 가기 꺼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어찌 보면 비천한 인생을 살아왔을 여인을 통하여 영적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36절).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4:40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이 예수에게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간청한다(40절).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을 상충하지 말아야 하는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여기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예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요구에 응하시고 이를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살을 맞대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지내신다. 아직도 옛 언약과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기억에 남는 이를 이었을 것이고, 그 시간 이후 그들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변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33</sup> 그리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 복음을 들었을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메시아적 공동체가 세워졌다.<sup>34</sup> 아버지를 향한 예수의 절대적 순종과 여인의 믿

---

있음을 볼 수 있다.

33 인간은 단순히 행동지침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가 선행될 때만이 진정한 윤리적/사회적/종교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작으로 다음을 참고하라. Paul G. Hilbert,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Grand Rapids: Bakers, 2008).

34 정승현도 그의 논문 결론에서 비슷한 평가를 내린다. 정승현, “이슬라모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September, 2016), 35-36.

음으로 인해 예수의제자들은 혐오의 장소에서 환대와 화해를 경험하고, 혐오의 대상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sup>35</sup>

## V. 요한이 전해주는 포용의 신학

우리는 이제껏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성육신이 가져온 새 언약의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관의 변화와 그 구체적인 예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이슬라모포비아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이제 우리의 논의가 지는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요한은 포용적인 인간론을 제시한다.

타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대부분 그릇된 인간론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는 여론과 나의 제한된 경험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게 된다. 우선 요한복음의 인간론은 창조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그와의 영원한 인격적 교제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 언약마저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한계점에 다다르자, 이 구속사적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35 고대 윤리적 진보라는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은 의식의 변화와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Shin(2019), 42-47.

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의 인간론은 창세기와는 달리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가 성육신하신 시점은 이미 이 땅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 어두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1:5, 10).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요한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세상'이라는 총칭 명사 또는 3인칭 복수 대명사나 추상 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1:91-12; 3:16-21). 그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무슬림을 포함하여 같은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태어났고, 그 어두움을 벗어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러한 인간론은 유대인들의 인간론과는 꽤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간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순수 혈통이다.<sup>36</sup>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방인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순수 혈통에 대한 유대인들의 집착은 더 심해졌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늘 강조하였고, 순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은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난다(4:9; 6:31; 8:33, 39). 하지만 요한은 이미 1:13에서 혈통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예수 또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6:63).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인간론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허물어트리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1:12; 20:31).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론의 이해는 이슬라모포비아를 극복하

36 N. T.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Minneapolis: Fortress, 1992), 230.

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까? 우선 예수는 계급과 위계질서가 중요한 중동 지역에서 여러 차례 기존 문화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다. 그걸 가장 잘 보여 주는 예가 바로 예수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이다. 예수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만날 때나 천하고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나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신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의아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득권도 없고 자신을 따르는 세력도 약한 시점에 예수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사이가 틀어져서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예수는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보내시며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신다. 사마리아 땅은 불경한 땅으로 인식되었기에 불가피하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인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하지만 예수는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내면을 만지시며 진정한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땅에 화해를 몸소 보여주신다.<sup>37</sup>

이러한 예수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에게 인간의 육적인 자격, 조건이나 출신 배경은 전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을 보실 때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는 육의 기준과 외적 모습을 보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신다(8:15).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외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기에 육신의 껍데기를 넘어

37 볼프는 화해를 십자가, 삼위일체, 성만찬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Volf(2012), 197-207.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자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눈으로 타인을 볼 때 상대방의 사회, 인종, 문화적 배경은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 예수는 항상 그러한 시선으로 만나는 이들을 바라보셨기에 상대방이 이방인이건, 세리이건, 종교 지도자이건 간에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이다. 예수에게 어두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뿐더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화, 종교적 장벽은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인간론은 단순히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거 이상을 요구한다. 예수는 자신에게 긍정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중립적으로 대하는 이들만 품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에게까지 어떠한 차별이나 혐오의 감정을 보이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는 제자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팔 것을 예언하신다(13:21).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가 지적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채지 못한다(13:22).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단 한 번도 유다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차별하시거나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8장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을 체포 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의 칼을 빼내어 베어 버린다. 베드로는 아마도 무고한 자신의 스승을 체포하러 온 이들을 저지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책임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신다(18:11). 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폭력과 세력 다툼으로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이다. 예수는 당신을 공격하는 이들의 행동을 용인하시기  
에 그들을 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  
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만으로도 모든 인간은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복음에서 발견하는 인간론은 고정된 운명론  
(fixed origin)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인간론의 이해는 무슬림을 그들의 운명에 갇혀  
있는 기독교의 적이 아닌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  
조물로 바라보게 만든다.

## 2. 요한은 포용적인 종말론을 제시한다.

올바른 인간론만큼 이슬라모포비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  
이 바로 올바른 종말론이다. 이슬라모포비아의 형성에 가장 큰 영  
향을 끼친 신학적인 체계는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다.<sup>39</sup> 세대주  
의는 19세기 미국 근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 체계로써 문자적  
성경 해석을 통해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교리의 핵심  
으로 삼았다. 특별히 대체 신학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세대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함  
으로써 중동 근대사의 역사를 유대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오류를  
낳았다.<sup>40</sup> 더욱이 세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친이스라엘 개신교  
인들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유대 국가 설립을 유대인의 종말론적 회

38 Vähäkangas(2017), 41.

39 이슬람 혐오와 세대주의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Christopher Cameron Smith, "Ex-Muslims, Bible Prophecy, and Islamophobia: Rhetoric and Reality in the Narratives of Walid Shoebat, Kamal Saleem, Ergun and Emir Caner," *Islamophobia Studies Journal* 2 (2014), 76–93.

40 앞의 논문, 78.

복의 시작점으로 볼 뿐 아니라, 그들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는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를 향해 저지르는 폭력과 폭압도 예언의 성취라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실수를 범했다.<sup>41</sup>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중동 나라의 연합이나 이슬람 전체에 일치시킴으로써 무슬림을 악마화 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긴장과 갈등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세대주의자 할 린지(Hal Lindsey)는 창세기 16:12를 기반으로 아랍인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보면서 그들에게는 유전자적으로 공격적이며 야만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한다.<sup>42</sup> 요엘 리차드슨(Joel Richardson) 같은 경우 이슬람을 사탄의 도구로 규정하고,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디(Mahdi)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주장한다.<sup>43</sup>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확증 편향적인 자료 분석에 의존할 뿐 아니라 주류 학계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그들이 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무슬림을 대화할 가치조차도 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종말론적 이해는 성경을 혐오와 증오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둔갑시키고 기독교의 근본 가치인 사랑과 포용에 반하는 행동을 조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은 어떠한 답을 주는가? 이미 앞서 본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흥미롭게도 추수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신약성경에서

41 좋은 예로 다음을 참조하라. 최승현, “한동대 채플서 이스라엘 찬양한 목사,” News&Joy,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16/\(2021년 8월 1일 접속\)](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16/(2021년 8월 1일 접속)).

42 Hal Lindsey, *The Everlasting Hatred: The Roots of Jihad* (Washington: WND Books, 2011), 60.

43 Joel Richardson, *The Islamic Antichrist: The Shocking Truth about the Real Nature of the Beast* (Los Angeles: WND Books, 2009), 27-29.

추수라는 단어는 종종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마 13:30; 막 4:29; 계 14:15, 19). 예수는 요 4:35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예수가 언급하는 추수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예수가 말하는 추수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추수를 가리킨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종말론적인 추수를 가리킨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가 추수를 언급하신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금단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서 복잡한 과거를 가진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와의 대화를 끝내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약속의 땅이자 메시아가 태어난 유대 땅은 추수할 곳이 없고, 사마리아 땅은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말이다(4:35). 더욱이 추수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임을 이미 앞서 보았다. 어찌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에 참여하게 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체는 더 이상 유대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으로 넓혀졌기 때문이다.

요한의 또 다른 저서인 요한계시록 7:9에서 이러한 종말론적 포용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cf. 계 5:9, 13:7; 14:6).<sup>44</sup>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44 필자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고 본다.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부르실 때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교파나 교리에 따라 부르시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신다. 하지만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이러한 구절에는 눈을 감은 채 성경적으로 근거가 약한 휴거라는 신학적 교리를 통해 타자화 담론(othering discourse)만 강화시키고 있다.<sup>45</sup>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개신교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과 다른 교리, 정책,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 휴거에 참여 못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적인 가치관은 예수의 성육신으로 도래한 새 언약 시대의 가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복음이 가져온 포용적인 하나님의 새 창조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바울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유대인 공동체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갈 3:28-29). 왜냐하면 새 언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속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이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나 이스라엘이 구속사적 역사에서 가진 특수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시오니즘 운동 지지자들의 왜곡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진 영적인 특권을 절대화시키고,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들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에

45 타자화 담론이 이슬람 혐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Edward Said, *Covering Islam: How the Media and the Experts Determine How We See the Rest of the World* (New York: Vintage Books, 1997).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을 꼬집는 것이다. 그러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믿고 지지하는 것과 현재 세속 국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유대인들의 귀환이나 유대 국가 수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sup>46</sup> 그리고 이러한 구속사적 물줄기에서 무슬림은 우리의 적이 아닌 포용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 3. 요한은 포용적인 공동체를 제시한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식탁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를 의미했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sup>47</sup>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음식에 관한 규례를 엄격하게 지켰고, 음식 규례를 어기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였다(마 9:10-11; 막 7:1-23; 눅 11:37-41, 15:2). 더욱이 유대인들은 죄인들(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식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두려워하였기에 다른 타인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항상 철저히 지켰다.<sup>48</sup>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허락하느냐는 것이었다.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 야고보가 보낸 이들을 의식해 식사를 그만두고 그 자리를 떠나간

46 세대주의와 시오니즘의 상관관계를 잘 요약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인엽, “세대주의와 기독교 시오니즘,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책,” News&Joy,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64/> (2021년 8월 3일 접속).

47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The Proclamation of Jesus* (London: SCM, 1971), 115.

48 James D.G. Dunn, *Jesus Rememb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602.

것에 대해 강하게 책망한다(갈 2:11-14). 베드로의 행동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의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그 문제로 인해 초대 교회가 얼마나 침예하게 대립했는지를 보여 준다. 유대인인 예수는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매우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살을 맞대고 음식을 나누는 데 할애하셨다(막 2:13-17; 눅 5:27-32). 그렇다면 왜 예수는 수많은 오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을까?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식탁 교제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일 것이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마지막 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식탁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적 함의는 바로 공동체 형성에 있다. 즉 예수가 어디서든 삶과 음식을 나눌 때마다 바로 그곳이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sup>49</sup> 새 언약 공동체는 기존 유대 공동체와는 달리 어떠한 장벽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새 언약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여기서 이웃 사랑은 단순히 나와 같은 이를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또는 심지어 나를 해하려 하는 이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마 5:43. 롬 12:14). 새 언약 공동체는 예수가 그러했듯이 나와 다른 타인을 죽기까지 포용하고 증오와 혐오의 사슬을 용서로 끊어 버릴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진정으로 빛난다.<sup>50</sup>

예수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신 후 그 자리를 바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더 유하시면서 그들과 삶과 음식을 나누신 이유

49 Michael Gorman, *The Death of the Messiah and the Birth of the New Covenant: A (Not So) New Model of Atonement* (Eugene, Or: Cascade, 2014), 38.

50 Volf(2012), 187-197.

도 그 어두움의 땅에 새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사마리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sup>51</sup> 마치 고멜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수백 년간 폭력과 차별의 서러움을 견뎌낸 사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는 이러한 비극에 침묵하지 않고 시고 긴 세월 겹겹이 쌓여온 혐오의 감정을 평화와 화해로 바꾸신다. 그리고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시며,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새 언약을 통하여 화해시키신다. 새 언약 공동체는 설립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새 언약 공동체는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이 땅에 포용과 용서를 실천하고, 누구나 편견이나 차별을 걱정하지 않고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요한이 전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를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땅을 더 이상 혐오의 땅이 아닌 곡식이 희게 익어 추수할 땅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제자들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무슬림을 대해야 하는가? 개신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무엇보다 강한 집단이다. 그리하여 종종 자신들이 고수하는 진리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누구)이든지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은 이와 정반대이다. 예수는

51 Brant Pitre, *Jesus the Bridegroom: The Greatest Love Story Ever Told* (New York: IMAGE, 2014), 66.



진리 자체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비폭력과 포용에 대한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sup>52</sup>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를 통해서만이 검증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이자 요한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성육신으로 인해 도래한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슬람 혐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성육신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 번째로 성육신은 계시의 보편화를 가져와 유대인을 넘어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은 옛 언약의 종말을 고하고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를 닮아 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변화는 이슬람 혐오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해준다. 대부분의 이슬람 혐오에 관한 연구는 사회/문화/정치/종교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통찰력과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필자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예수의 본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는 그의 언행을 통해 기존 유대 구습을 철폐시키시면서 새로운 윤리적/종교적 기준을 정립해 나가신다. 더욱이 니고데모와 요한의 제자들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적합한지를 모순적으로 잘

52 Volf(2012), 434.

보여준다. 요한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독자들의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도와준다.

예수의 개혁적인 모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정점을 찍는다. 예수가 사마리아 땅에서 보여준 언행들은 유대인들의 기존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혐오의 땅에서 환대와 화해를 경험케 하신다. 그러한 예수가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신다면 무슬림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와 같은 질문은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유행이 지난 레토릭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를 닮아 가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 요한복음이 21세기에 쓰였다면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대신 무슬림 여인의 이야기로 대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오랜 봉쇄로 억압받고 있는 가자지구로 넘어가시는 도중에 만난 무슬림 여성에게 먼저 다가가 말동무가 되어 주시고, 음식을 나누고,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억압에 자포자기한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무슬림을 대해야 할까? 예수가 그러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슬림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이 아닌 이웃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증오의 땅에서 화해와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선일. “이슬람포비아와 복음전도.”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September, 2016): 69-96.
- 김동문. “이슬람포비아, 조장인가 실체인가?.” *진보평론* 67 (2016), 138-159.
- 문시영.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 이슬람포비아의 윤리학적 성찰.”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September, 2016): 45-68.
- 박종수.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 (2017): 49-70.
- 정경일. “그리스도인의 무슬림 혐오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2 (2018): 125-140.
- 정승현. “이슬람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9, no.2 (September, 2016): 09-44.
- 조석민. 『요한복음의 새관점』. 서울:솔로몬, 2009.
- Anderson, Paul. *Riddles of the Fourth Gospel: An Introduction to John*. Minneapolis: Fortress, 2011.
- Burridge, Richard. *Imitating Jesus: An Inclusive Approach to New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2007.
- deSilva, David 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Unlocking New Testament Culture*.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 Dunn, James D.G. *Jesus Rememb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 Gorman, Michael. *The Death of the Messiah and the Birth of the New Covenant: A (Not So) New Model of Atonement*.

- Eugene, Or: Cascade, 2014.
- Gupta, Nijay K.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Grand Rapids: Eerdmans, 2020.
- Hilbert, Paul G.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Grand Rapids: Bakers, 2008.
- Hood, Jason B. *Imitating God in Christ: Recapturing a Biblical Pattern*. Downers Grove: IVP, 2013.
- Hunt, Steven A. et al. eds. *Character Studies in the Fourth Gospel: Narrative Approaches to Seventy Figures in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6.
- Jeremias, Joachim.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The Proclamation of Jesus*. London: SCM, 1971.
- Koester, Craig R. *Symbolism in the Fourth Gospel: Meaning, Mystery, Commu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_\_\_\_\_. *The Word of Life: A Theology of John'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08.
- Köstenberger, Andreas J. *Joh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4.
- Lindsey, Hal. *The Everlasting Hatred: The Roots of Jihad*. Washington: WND Books, 2011.
- Meeks, Wayne. "Galilee and Judea in the Fourth Gospel." *JBL* 85 (1966), 159–169.
- Novakovic, Lidija. "Jews and Samaritans"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Edited by Joel Green and Lee M. McDonald; Grand

- Rapids: Bakers, 2013.
- Pitre, Brant. *Jesus the Bridegroom: The Greatest Love Story Ever Told*. New York: IMAGE, 2014.
- Richardson, Joel. *The Islamic Antichrist: The Shocking Truth about the Real Nature of the Beast*. Los Angeles: WND Books, 2009.
- Ruelland, Jacques G. *Histoire de la Guerre Sainte*. 김연실 옮김. 『성전, 문명충돌의 역사』 (서울: 한길사, 2003).
- Said, Edward. *Covering Islam: How the Media and the Experts Determine How We See the Rest of the World*. New York: Vintage Books, 1997.
- Saldarini, Anthony. *Pharisees, Scribes and Sadducees in Palestinian Society: A Sociological Approach*. Grand Rapids: Eerdmans, 2001.
- Shin, Sookgoo. *Ethics in the Gospel of John: Discipleship as Moral Progress*. BINS 168; Leiden/Boston: Brill, 2019.
- Smith, Christopher Cameron. “‘Ex-Muslims,’ Bible Prophecy, and Islamophobia: Rhetoric and Reality in the Narratives of Walid Shoebat, Kamal Saleem, Ergun and Emir Caner.” *Islamophobia Studies Journal* 2 (2014): 76–93.
- Smith, D. Moody. *The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Sonn, Tamara. *Is Islam an Enemy of the West?*. 김문주 옮김. 『어떻게 이슬람은 서구의 적이 되었는가』 (서울: 시그마북스, 2017).
- Vähäkangas, Mika. “Islamophobia in Europe as a Theological

Failure.” *Muslim-Christina Encounter*, vol 10, no. 1 (March, 2017): 27-59.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Wagener, Fredrik. *Figuren als Handlungsmodelle: Simon Petrus, die samaritanische Frau, Judas und Thomas als Zugänge zu einer narrativen Ethik des Johannesevangeliums*. WUNT II/408; Tübingen: Mohr Siebeck, 2015.

Wright, N. 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Minneapolis: Fortress, 1992.

이인엽. “세대주의와 기독교 시오니즘, 그리고 친이스라엘 정책.” News&Joy,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64/> 검색일: 2021년 8월 3일.

최승현. “한동대 채플서 이스라엘 찬양한 목사.” News&Joy,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16/> 검색일: 2021년 8월 1일.

■ ABSTRACT

## Islamophobia and John's Theology of Embrace

Sook Goo Shin

Islamophobia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hate crimes both in the East and the West. It is not uncommon nowadays to witness Muslims being unfairly accused of threatening world peace, and for that reason, even normal Muslims have been mistreated and even systematically discriminated in their workplaces and daily life. What makes Islamophobia even more disturbing is that this hate crime is not simply a social issue anymore but some Christian groups or individuals are often actively involved in spreading fake news about Muslims and end up contributing to the social construction of Muslims as public enemies. This paper argues that Islamophobia is not only caused by the lack of social or political understanding of who Muslims are, but is heavily motivated by a distorted eschatology or the lack of a sound biblical worldview. Furthermore, it also emphasizes that imitating the examples of Jesus is critically essential in order to overcome Islamophobia.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words and deeds of Jesus as found in the story of the Samaritan woman in John's Gospel and examine how Jesus's examples of embrace affect our understanding of anthropology, eschatology, and community and thus show us a way forward in loving Muslims as our neighbors.

**Keywords:** Islamophobia, Incarnation, New Covenant, Embrace, Worldview, Community